

익산 미륵사지 '한국관광의 별'로 떴다

문광부 주최 본상 수상
20년 석탑 보수 마무리
K-방역 관광지로 주목

익산시는 미륵사지가 '2020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선정한다. 익산 미륵사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

로 지정된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지로 지난해 20년에 걸친 석탑 보수공사가 마무리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올해 1월에는 보이지 않는 박물관 형태의 국립 익산박물관을 개관, 24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또 지난 6월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8월 '미륵사지 달빛 향연'을 주제로 한 야간 열린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익산시는 사전 예약제 해설 서비스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통해 모범적 K-방역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익산 미륵사지가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여행지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손길을 통해 꾸준히 변신해 온 결과"라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관광 발전에 기여한 자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선정돼 오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유곡리·두락리 토지매입 96%
내년 현지 실사후 2022년 결정

남원시가 지역내 가야고분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를 목표로 고분군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며 현재 96% 이상의 토지가 매입됐다. 남원시는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된 토지매입과 함께 발굴조사가 진척됨에 따라 2021년 현지실사에 대비해 2억3000만원의 추가예산도 확보했다.



남원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남원시 제공>

주요 관련 사업은 수목·경관 정비, 탐방로 동선 체계 개선, 농경지 정비, 시설물(축사, 철재구조물) 철거 등이 있다. 남원시 가야고분군은 경남 김해와 경북 고령 등 가야고분군 6곳과 함께 세계유산등재 대상에 선정됐다.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최종 보고서를 내년 1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9월께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협회

(ICOMOS)에서 현지실사를 다녀가면 2022년 7월 세계유산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세계유산등재 업무를 총괄하는 추진단은 경남, 경북에서 운영됐고 내년부터는 부터 2년간 전북(남원)에서 등재추진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기문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문화재청·추진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일정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국립 희귀질환센터 유치 나서

국제 웨비나 개최

익산시가 국립 희귀질환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통합전수 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제2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 웨비나(Webinar)'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립 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웨비나는 '아시아 국가의 의료시스템과 도전과제: 희귀질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 대

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내용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만의 잉웨이 왕(YingWei Wang) 건강증진국장, 홍콩 피터 위엔(Peter Yuen) 교수, 싱가포르 푸아 카이 홍(Phua Kai Hong) 교수, 말레이시아 샤피 아스룰 악말(Shafie Asrul Akmal)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아시아의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성철 대한희귀난치성질환학회 학회장, 박병주 서울대 의대 교수, 한도운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희귀질환 연구에 대한 사례와 관리체계 개선 방향

을 제시했다. 이번 웨비나는 국제 전문가들과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유치를 위한 산업·시장동향, 기술공유를 통해 익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아시아 주요국의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체계 경험의 공유를 통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희귀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국제 웨비나 개최는 의미가 깊다"며 "국립희귀질환센터가 익산에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아파트 투기 세력 꼼짝마!' 군산시, 불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전주 투기조정 대상 지정따라
투기세력 이동 선제 대응 나서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 신고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한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다. 특히 군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 추이를 지

속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 신고된 아파트 중 가격의 거짓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이다. 또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해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제언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구룡마을 주민들, '향기도시 조성사업' 적극 지지

정읍시 구룡마을 통장과 마을발전협의회 청년회원들이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가 추진하는 향기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사진>



22일 정읍시 구룡마을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정향누리 향기도시 정읍의 대표마을 구룡동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마을공동체 향기마을 꾸미기 등에 주민들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주민 간 논쟁과 시비가 벌어졌지만 이를 불식하고 힘을 모아 마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이 이바지하

겠다"고 덧붙였다. 정읍시 구룡마을은 80여 세대에 1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인근에 라벤더허브농원을 조성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